

미디어와 젠더의 사회문화적 함의

함 현*

*청운대학교 방송영상학과

e-mail: poparts@chungwoon.ac.kr

A Study on the Social & Cultural aspect of Media and Gender

Hyun Hahm*

*Dept. of Broadcasting & Digital Media, Chungwoon University

요약

우리 사회에서 표출되고 있는 젠더의 문제는 일상성의 문화로 고착되어지고 있다. 또한 미디어에서도 젠더의 표출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디어 문화에서 표현하고 있는 젠더의 문제 또한 고정관념으로 한국의 가부장제 중심의 남성 지배구조를 표출하고 있다. 물론 드라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젠더의 고정 관념이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의 의식세계가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젠더와 미디어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현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서론

우리사회에서 끊임없이 부각되고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대립구조는 젠더의 구별 짓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구별 짓기’란 어떤 것 또는 어떤 이의 중요한 특징을 희석시키는 경향을 말한다. 그리고 구별 짓기를 하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한 성의 모든 구성원이 기본적인 면에서 모두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1].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구조에서 나타나는 젠더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한국의 젠더 문화 구조 및 관계 형성은 어떻게 표출되고 있을까? 젠더 문화와 유사한 한국사회에 대해 필립 풍스(Philippe Pons)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유교적인 억압의 힘으로 작용하여 한국의 여성은 유교와 정면 대결하기 보다는 유교의 억압을 우회적으로 피해가고 있다” [2]. 그가 말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 즉 한국인의 특징은 우리 사회의 젠더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관점, 남성과 여성의 관점에서 미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의 불평등한 문제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의 발전과 평등의 원칙을 지향하는데 있어서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젠더의 문제인 구별 짓기가 미디어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사회문화적 현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젠더의 의미

젠더는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의 구분이 보편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역사학자와 역사 연구자들이 점차 성과 젠더의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했던 무렵부터, 다시 말해 이들이 분석의 범주로 젠더의 유용성을 인정한 바로 그 시점부터 성과 젠더의 차이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3]. 성은 생물학적인 반면, 젠더는 사회적, 심리적으로 구성된다. 젠더는 사회적으로 남성 되기, 여성되기와 관련이 있는 정체성, 역할, 활동, 감정 등을 가리킨다 [4]. 또한 젠더는 사회적으로 성을 이용해 남성성 또는 여성성으로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남성다움의 남성과 여성다움의 여성에 대한 차이를 구분함으로써, 각기 고유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젠더의 의미를 쉽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젠더의 의미

와 해석을 변해가고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이 상호작용을 통해 각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 변화를 찾을 수 있다.

3. 미디어와 젠더

한국적 상황에서 젠더에 관한 아비투스 구조화 과정과 현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비투스는 한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개인에게 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젠더의 표현 방식은 아직까지 남성중심의 사회구조 및 체제를 통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에서도 남성지배 구조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특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성 지배 문화’란 남녀간의 위치 및 관계라는 점에서 볼 때, 한 사회의 문화가 남성 중심적, 남성 우선적이며 남성의 우월성과 남성성에 의한 여성 억압을 그 특성으로 지닌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5]. 즉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구조에 의한 사회질서의 확립과 불평등 체계에서 비롯된 억압의 형태가 미디어에서도 끊임없는 대립 구도로 표출되고 있다. 즉 남성 지배 문화가 미디어에서 자연스럽게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별하는 젠더의 문제로 확장되고, 남성의 기득권에 대한 논쟁이 미디어 문화와 연관되어 우리의 의식세계를 끊임없이 지배하고 있다. 미디어를 통한 남성과 여성의 힘의 논리 구조, 즉 젠더의 표출 방식은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변화하고 있다.

4. 미디어와 젠더의 관계

이미지가 범람하는 시대에 있어서 미디어가 제공하고 있는 젠더의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 미디어는 다양하면서도 때로는 모순된 젠더 이미지가 구축하는 매혹적인 무대를 제공한다 [6]. 미디어가 다루고 있는 젠더의 접근 방식은 우리의 문화적 고정 관념을 지배하고 있다. 여성의 아름다운 신체의 표현은 남성적 시각에서의 보편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남성의 근육질 몸매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초맨, 즉 늠름하고 강한 사내대장부를 표상하고 이미지로 부각된다. 결국 남성의 근육질 몸매는 여성의 아름다운 몸매를 지배하는 젠더의 상하구조를 힘의 논리에 의한 젠더를 구별 짓고 있다. 미디어에서 표출되고 있는 남성성의 상징적인 이미지와

여성성의 상징적인 이미지의 대립구도는 보편성으로 구조화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구조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5. 미디어에서 표출된 젠더의 대립

오늘날 여성의 지위는 남성의 지위에 비하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많은 불리한 점을 초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의 경우 사회적·경제적 보상의 배분이 대부분 그들의 가족의 위상, 특히 남성 가장의 지위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7]. 과거의 비해 여성들의 특정한 사회적 위상은 고취되었으나, 권한과 결정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남성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일일연속극에서 표출되는 젠더의 대립과 서사적 관행에 있어서 여성은 일반적인 대상이다.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여성의 묘사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남성성에 비해 하위구조로 표현되는 것이 지배적이다. 즉, 남성의 권력과 불평등한 가부장적 문화가 미디어에서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다. 남성의 시선에 의한 여성을 수동적 대상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변화와 남성의 권력에 희생된 여성의 복수극을 그리는 서사구조를 살펴보면, 남성의 미디어 권력에 대한 페미니즘의 연구와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새로운 미디어가 창출된다는 점이다.

6. 결과

우리 사회에서 젠더를 구분하는 것은 사회적인 젠더의 문제와 생물학적인 성의 관계와 밀접한 연관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젠더의 문제는 일상성의 문화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하나의 문화 형태로 인간의 가치, 기대, 행동 등 다양한 유형을 표출되고 있다. 결국, 젠더의 문제는 보편적인 성격과 특수한 상황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젠더 문제는 대상을 구별 짓기 보다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상호작용을 통한 질서구조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미디어에서 젠더에 관한 문제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성의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으로 구축된 젠더를 표상하기 보다는 젠더의 간극을 최소화하여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WoodT.Julia(2005), 「GenderLives:Communion, Gender & Culture」, 한의정 윽김(2006), 「젠더에 갇힌 삶: 젠더, 문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p.27.
- [2] 정수복(2007),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생각의 나무, p.96.
- [3] MerryE.Wiesner-Hanks(2001), 「Gender in History」, 노영순 윽김 (2006), 「젠더의 역사」, 역사비평사, p.15.
- [4] Wood, 위의책, p.29.
- [5] 박혜란 외(1998), “남성 지배 문화의 극복과 인간다운 삶”, 지배 문화 남성 문화 [또 하나의 문화], 제4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p.30.
- [6] Wood, 위의책, p.339
- [7] EllenM. Brown(1989), 「Television and Women's Culture」, 김선남·안홍엽 윽김((2002), 「텔레비전과 여성문화」, 한울 아카데미, p.229.